

## Erikson의 인간론에 나타난 연구관점의 특징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학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Erikson의 인간론에 나타난 연구관점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의 주요한 저작들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방법론적 특징을 그가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론들 즉, 그의 '사물을 보는 한 견해', 그의 학문이 임상과학으로서 갖는 '주관성'의 중요성,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도구로서의 관찰자' 또는 그가 명명하고 있는 '참여적 관찰법'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그의 견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살아있는 인간을 중시한 사례연구에 대한 그의 심리역사적 방법론의 특징과 이론적 기초 등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 Erikson • 임상과학 • 심리역사적 방법 • 참여적 관찰 • 주관성 • 상호관계성**

인간의 자아의식에 대한 발달을 평생을 두고 달성되는 심리적 과업으로 보고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과제를 제시한 E. H. Erikson은 특히 출생후 시작되는 정신발달을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의 면모를 밝혀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인간발달에 대한 점성적(epigenetic) 이론은 현대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정신의학 및 정치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아청, 1984).

그가 즐겨 사용한 아이덴티티 또는 심리사회적 유예(psychosocial moratorium)

란 용어는 이제 일반 대화에서도 사용되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높은 용어로서도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발달단계별로 제시한 그의 자아발달의 모형은 전생애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인생주기표(Grand plan)로서 오늘날 평생발달심리학의 기본적 이론을 제공하는 주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박아청, 1995b). 아마도 인간의 정신발달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의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인간발달이론은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Shaffer, 1996, p. 53).

그런데 막상 그의 이론을 엄밀하게 분

석하고 연구해보면 많은 경우에 그의 초기의 견해 또는 이론의 배경에서 간과한 깊은 문제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 없이 그가 제시한 용어나 도표(박아청, 1994)들을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컨대, '아이덴티티'라는 용어, 하나를 들어보아도 평생을 두고 전개되는 아이덴티티 형성과제를 흔히 청년기에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antrock, 1995, p.38). 그리고 그 배경에 퍼져 있는 '아이덴티티'의 사상의 기본적 가정에 대한 이해없이 유명한 8가지 단계의 발달표(epigenetic chart)를 정확하게 읽는다고 할 수 없다(Liebert & Spiegler, 1998, p.112). 그리고 루터(Erikson, 1958)나 간디(Erikson, 1969)에 대한 전기연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의 심리역사적 연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박아청, 1995a).

실제로 Schlein과 같은 학자에 의하면 자아심리학 쪽에서 Erikson의 이론을 수용하는 경우는 정신사(psychohistory)의 방법이나 아이덴티티의 윤리사상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정신사 쪽에서 그의 이론을 논의할 때는 아동의 놀이에 대한 관찰이나 그의 종교사상에까지 주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Schlein, 1987, p.598).

그렇다면 Erikson의 이론을 전체적으로 보아 무슨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발달에 대한 그의 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분명히 Erikson은 Freud의 정신분석론에서 출발하여 일관해서 정신분석의 '정통파'에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에서 만년의 『평생주기와 그 완결(The Life Cycle Completed)』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Freud에 답하면서 연구를 계속하였다. Conzen(1990)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신분석 쪽에서 볼 때, 그의 이론은 자아심리학을 대상관계론적으로 전개시켜 사회나 역사와의 관계를 시도한 것으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Erikson의 이론을 정신분석학 가운데 하나의 이론으로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Freud의 심리성적 접근을 재정리한 것이라기 보다는 심리성적 발달이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haffer, 1996, p.51).

그런 반면에 그의 이론을 하나의 발달이론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발달이라는 사실을 한 개인의 발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의미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자아를 초월한 것으로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발달이론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장대한 이론적 지평"(Conzen, 1990, p.233)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그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세대계승'(Erikson, 1974, 1975), '역사'(Erikson, 1975; 박아청, 1995a) 또는 '자기초월'(Erikson, 1982; 박아청, 1997)과 같은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는 인간의 발달을 신체, 심리적인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속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아이덴티티'라는 용어에서

도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서 ego나 self와 같은 자아심리학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아이덴티티'나 그 '유사종화(類似種化, pseudospecies)'의 문제(Erikson, 1968, pp.41-42)로서 Erikson의 윤리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사종화의 문제에서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다른 종(種)과의 관계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서 '청년기의 아이덴티티 위기론'의 사례를 역사 속에서 추구하는 데서 정신사의 명저, 『청년 루터』가 탄생되었고, '중년기의 위기'를 논할 때는 『간디의 진리』가 종교 사상과 함께 전개되어 전기연구나 종교 심리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Erikson의 이론이란 것은 어디에서 보아도 그 논의의 전개에 따라서 기성 학문구분을 초월하여 생활세계나 평생주기의 전체를 넘나드는 지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Erikson의 이론적 구조를 정리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인가? 그것은 심리학, 사회학 또는 교육학이라고 하기보다는 Schlein(1987)이 Erikson의 저작들을 정리하여 편집한 책의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이들 학문을 자유롭게 횡단하면서 과학과 사상을 연결해 가는 '사물을 보는 한가지 방식(a way of looking at things)'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이론을 한마디로 '인간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Erikson이 반복적으로 연구한 기본적 집단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구한 연구들이 산인간이 살아 있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Newman & Newman, 1988)을 볼 때, Erikson의 연구의 관점의 한 면모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의 인간론의 전체적인 모습이 갖는 특징은 그가 즐겨 사용한 연구의 관점에서 우선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Erikson이 지향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객체화된 대상'에 대한 연구임과 동시에 '연구자 자신이 마치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반성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Erikson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 관점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이론의 전체적인 모습과 아울러 그의 고유한 '보는 눈'을 탐색하려고 한다.

### Erikson의 사물에 대한 견해

Erikson의 발상은 철저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최초의 체계적인 저술인 『아동기와 사회』(1963a)에서 나타난 그의 서술 스타일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본서의 얼마 남지 않은 페이지를 왼손 엄지가락 밑에 느끼면서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짧은 결론으로 앞장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를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지금까지의 서술이 '주변을 둘러싼 예증(periphery of our illustrations)'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의도한 것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에는 '형식적 결론(formal

conclusion)' 속에 보다 적절하게 그것을 논할 수 있을지를 말하자면 무리일 것이다. 다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견해(a way of looking at things)일 뿐이다(1963a, p.403).

미국 인디언 부족에 대한 관찰을 비롯하여 수명의 소년들에 대한 임상기록, 그리고 히틀러, M. Gorky(1963, chapter 10)와 같은 사람들의 전기연구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는 원대한 '개념에 의한 여행일지'를 통합하여 고찰한 결과, Erikson은 "다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견해(a way of looking at things)일 뿐이다"(p.403)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Erikson의 논문집을 편집한 Schlein이 그 책제목을 선택할 때 주목한 곳도 역시 이 한 구절이었던 것이다(Schlein, 1987). 반세기에 걸쳐서 Erikson의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Erikson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라 생각된다.

Erikson은 자신의 사물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장면을 세밀하게 서술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기에 묘사된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얻기에 이르는 '보는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결론에 의해서는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주변'의 장면을 몇 번이고 묘사해 가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a way looking at things'의 'a'는 '다만 하나의'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많은 사물에 대한 '견해 가운데 한 개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 두면 좋을 것이다. Erikson은 어떤 자신의 사물

에 대한 견해를 유일한 것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사물에 대한 견해'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사물에 대한 견해가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사물을 본다고 하는 견해'야 말로 Erikson의 '그것'이라고 본다면 역시 'Erikson 고유의 사물에 대한 견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물에 대한 견해'에 눈을 두지 않는 한 Erikson의 이론을 이해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Erikson은 그러한 연구의 관점에 대한 검토를 어딘가에 체계적으로 언급했는가하면 직접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은 뒤에 언급할 몇 가지 논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Erikson이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그의 저작은 거의 모두가 방법론적 반성과 동시에 진행되고 전개되어 있다. 예컨대, 『간디의 진리(Gandhi's Truth)』(1969)와 같은 작품의 구성 그 자체가 psychohistory의 방법론적 검토로서 구성되어 있어 작품의 구성 하나 하나가 방법론적 시행착오의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스스로 생각한 '사물에 대한 견해'를 반성적으로 자기를 대상화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에 의해 실제로 사물을 보면서 가는 것과 같은 이중성, 그러한 이중성이야말로 Erikson의 서술의 스타일과 그의 정신분석이해, 나아가서 그의 윤리사상을 일관

적으로 흐르는 Erikson의 '사물에 대한 견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Erikson 고유의 '사물에 대한 견해'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냐 명명하면 좋을 것인가? 그의 저술에서 살펴보면 아마도 '임상적(clinical)'이라는 용어를 선택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Erikson 자신이 자신을 가끔 '임상가'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Erikson, 1965, p.50 등), 또 자신의 연구영역을 '임상과학(clinical science)'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Erikson, 1958, p.18, 1965, p.239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이 경우의 '임상(clinical)'이란 말은 반드시 심리임상가나 의사의 치료만을 의미하는 전문용어가 아니라 Erikson이 말하고 있는 "사제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최후를 간호하는 것"(Erikson, 1963a, p.24, 1977, p.50)을 의미한다고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살아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을 상대로 하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임상'과학의 사물의 보는 견해를 방법론적으로 그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아동기와 사회』)을 역사적 과정에 관한 책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나 정신분석가는 한편으로 새로운 타입의 역사가인 것이다. 그는 관찰하는 대상에 스스로 영향을 주어 자기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역사적 과정 속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는 치료자로서 관찰자에 대한 자기자신의 반응을 의식하여야 한다. 관찰자로서의 그의 '반응의 등

식(양식, equations)'이 실은 그이 관찰도구 그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중략) 정신분석적 방법은 H. S. Sullivan이 말하는 '참여적(participant)'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또 피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신분석의 체계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주관적인 책(a subjective book), 개념에 의한 여행일지(a conceptual itinerary)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1963a, pp.16-17).

## 연구자의 모습

### 1. 참여적 관찰자와 관찰적 참여자

『아동기와 사회』 초판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Erikson의 정리에서 보듯이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론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형용사로 '참여적(participant)'이란 단어와 "주관적(subjective)"이란 용어이다.

먼저 '참여적'이란 용어를 살펴보자. 임상과학은 '참여적'이다. 관찰자는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관찰한다. 즉, 관찰대상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상으로부터 보는 것과는 거꾸로 오히려 관찰하는 대상에 스스로 영향을 주고 연구대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점에 대한 Erikson의 입장을 살펴보자.

임상과학은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찰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상(object)'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보여지는 쪽도 보는 쪽과 같은 자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란 의미에서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Erikson의 말을 빌리면 파트너로 불러우는 존재양식을 가지고 관찰자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whole people)'(1965, p.29)라는 관점을 부가시켜 본다면 '관찰대상'을 그 '전체성(wholeness)'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파트너와 같은 관계(partnership)로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만일 치료자가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whole people)로서 다룬다면 환자 쪽도 자신의 것이었던 전체성(wholeness)을 의식하기 시작"(p.25)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인간을 상대로 한 경우의 '있는 그대로'란 것은 독립자존하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배양상태, 표준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거꾸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것과 같은 타인에 영향을 주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즉 그 상호관계가 가장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Erikson의 말을 빌리면 "방위적 태도가 가장 적고 서로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참가의 세계를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actuality is the world of participation, shared with other participants with a minimum of defensive maneu-

vering and a maximum of mutual activation)"(1965, p.165)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관찰한다-관찰된다'와 같은 일방적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찰대상의 모습'은 임상과학에서는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은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의미를 Erikson은 "사물의 성질(the nature of things)"을 배우는 것과 "살아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본질(the essential nature of living beings)"을 배우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들은 사물의 성질에 대해서는 그 사물에 대해 어떤 조작을 가함으로써 연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대로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살아있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해서 본다면가 또는 그것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이 임상과학의 원칙인 것이다(1965, p.229).

이처럼 Erikson은 'by doing something to them'과 'by doing something with them or for them'에서 전치사를 달리하여 사물의 본질을 교묘하게 설명하는 문체와 함께 그의 사물을 보는 견해의 원칙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임상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관찰이란 살아있는 상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살아있는 상대에게

작용하고 또 작용을 되받는 그 상호관계를 관찰하는 것, 즉 '관찰자와 관찰대상과의 상호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관찰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 일부인 gestalt(=configuration)를 그 관찰되는 쪽 즉,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것, 또는 본래의 의미에서 볼 때 타인과의 만남(Begegnung) 속에 있는 것이 관찰되는 쪽으로부터 언어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밖에서 보는 관찰이 필연적으로 상대에 대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 만남을 생생한 것으로 하여 그 케슈탈트를 살아있는 파트너로 삼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관찰 그 자체가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참여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Erikson의 발상의 원점이었던 심리치료 장면으로 되돌아서 본다면 치료자인 관찰자는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치료자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환자를 '회복으로 향하여' 변화시키면서 상대를 바꾸는 것이 동시에 자신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된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환자가 환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치유해가는 동시에 의사는 치료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발달해가는 것"(1965, p.236)으로 본다. 치료자와 환자는 "상호 동기를 부여하며 작업을 분업하며 그리고 함께 하며 공통의 것을 연구하는"(1963b, p.423) 관계이다. 이것이 바로 Erikson이 구상한 윤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상호성(mutuality)'의 관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임상과학이란 관찰하는

쪽의 사람에서 보아도 관찰자 그 사람 자신을 전체가 포함된 인생의 한 장면이다. 따라서 임상장면의 기록이란 그 만남을 통하여 관찰자 자신이 변해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포함하여 묘사해가는 것이란 말이다. 그러한 관찰이 '참여관찰'이란 것을 Erikson은 Evans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가 기대하는 연구자는 '참여관찰자(participant observation)'이고 동시에 '관찰적 참여자(observant participants)'임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예컨대, 정치와 같은 영역에서 관찰적 참여자가 되는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1977, p.206).

## 2. 훈련된 주관성

Erikson이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형용사는 '주관적'이란 단어이다. 이 subjective를 '주체적'으로 읽으면 그것은 앞서 본 '참여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이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읽을 때 부각되는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그는 치료자로서 피관찰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찰자로서의 그의 '반응의 등식(equations)'이 실은 그의 관찰도구 그것이 되기 때문이다(1963b, p.16).

이와 같이 임상장면을 방법론적으로 다룬 의미에서 그의 논문(On the nature of clinical evidence, 1958, Daedalus,

pp.65-8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똑같은 꿈을 앞에 두고서도 치료자의 기질이나 신념의 차이에 의해 그 해석의 방식은 당연히 다르게 된다. 그렇다면 임상장면이란 '치료자의 느끼는 방식, 정서, 사고양식이 혼합된 성향'(the disposition)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치료자가 임상의 만남 장면에서 자기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판단의 근거로서 또 치료실천의 지침으로서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객관성이란 그럴 듯한 주장을 내세워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치료는 전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중략) 관찰자의 정서적 반응에 보이는 그 사람 특유의 반응양식이 야말로 실험실에서의 실험자의 감각이 감당하는 역할과 같은 중요성을 심리치료에 있어서도 가지고 있다. 치료자의 억압된 정서는 가장 흔히 범하는 맹점으로서 쉽게 감추어 버리는 것이다(Schlein, 1987, p.73에서 재인용).

이렇게 Erikson은 '객관성'을 내세우고 있는 실증과학이 배제하려고 노력한 '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임상과학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것(subjectivity)'이란 이 경우, '주관적 반응(subjective response)'을 의미하는 것이란 점이다. 즉, 그것은 상대를 앞에 두었을 때의 반응,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상대와 떨어진 관찰자 '개인'의 '안 쪽'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관계'의 표현, 보다 사태에 직면하여

양자의 관계가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관찰자에게 나타난 것의 모습이란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상대의 쪽에도 같은 자격으로 '주관적 반응'이 성립한다.

임상의 관계란 그러한 쌍방의 '주관적 반응'을 서로 전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가 변화해 가는 것에 의해 양자의 관계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관계인 것이다. 그와 같은 주관적 반응을 배제해버린다면 관찰자 자신은 살아있는 파트너로 있을 수 없게 되며, 거기에는 더 이상 '만남'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관찰자는 스스로의 '주관적 반응'을 실마리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찰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 '관찰의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그것을 실마리로 하여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스며들고 관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D. Capps(1977)의 Encounter with Erikson이란 제목의 논문집에는 그 논제에서도 말해 주듯이 '관찰의 도구로서의 관찰자'(the investigators as an instrument of investigation)라는 제목으로 된 논문이 실려있는 것은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요점은 관찰에서 '주관적 반응'의 자리매김을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있는데 그 분류에 의하면 첫째는 주관적인 것을 일체 '억압하고 제거하는' 종전의 객관적 과학, 둘째는 도입부분으로서만 개인적 보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관찰 그것의 작업에는 어떠한 주관적인 반응도 섞이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는 Erikson의 방법이 '주관적 반응을 관찰의 도구로서 사용

하는'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넷째는 주관적 반응이 지나치게 많아 관찰자의 개인적 감정이 관찰을 지배해버려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혼동되어 버리는 유형이다.

이 분류 그 자체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체내용을 '관찰의 도구로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의 분석과 해명으로 받아 들일 때 거기에 포함되는 이중성이 확대되어 부각된다.

관찰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자신을 쏟으면서도 그렇게 몰입해 가는 자신을 어떤 곳에서 제어하는 또 하나의 자신을 동시에 보존해 가는 것, 말을 바꾸면 자기자신이 관찰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그 도구를 사용하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반응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대상화하는' 의미에서 항상 이중성을 살려가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참여관찰'이 본질적으로 포함하려고 한 이중성이란 보다 일반적인 학문방법론의 문제로서 본다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서 비로소 볼 수가 있다'는 딜레마, 또는 생의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앞의 객관성을 보증한다고 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임상과학에 있어서 관찰자가 그러한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그 주체성은 '자기대상화를 수반하는 주체성'이 되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관찰자의 자기자신에 대한 연마된 통찰력'(1965, p.36)을 동반한 주관성의 것을 Erikson은 '훈련된(강제적으로) 주관성'(disciplined subjectivity, p.53)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훈련된 주관성'이 정신분석적인 치료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훈련에는 교

육분석, 즉 자기분석이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이 점이야 말로 Erikson이 Freud이론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Freud의 방법과 Gandhi의 사상이 "방법상으로는 대응되지만 인간관에서는 일치한다"(1969, p.245)는 점이다. 정신분석도 비폭력의 사상도 항상 자기자신을 반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방법, 자기자신을 상대적=관계적(relative)으로 보면서 실천하는 방법, 이 양자와 함께 상황의 안쪽에 있으면서도 외부 쪽에도 있는 것과 같은 양자적인 위치에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실천 방식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참여적'이고 '주관적'인 것에 Erikson의 사물을 보는 견해는 자기자신을 '반성적'으로 대상화하면서 스스로를 그 일부인 관계전체의 안쪽으로부터 '상대적=관계적'으로 자신을 보는 입장인 것이다. 즉, 'reflective'하여 'relative'하면서도 'participant'하여 'subjective'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중성을 포함한 사물을 보는 입장이야말로 그의 방법론의 요점인 것이며, 그의 사상의 기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상호관계성의 문제

Erikson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인 이 relativity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대성'이란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가 가끔 물리학자 Einstein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깊은 관계가 있다. relative와 relation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서로 관계하고 대응하는 것'과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relativity를 '관계성'이라는 말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앞서 본 Erikson의 사물을 보는 견해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사물을 보는 견해'를 확대 해석하여 하나의 학문방법론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Erikson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극히 간단하게 '사실은 그 사실을 획득하기에 이른 것에 대한 보는 견해에 의존한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선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논의되어 온 것으로 관찰자의 사물의 보는 견해와 상대적=관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동일한', '객관적인' 대상자체, 또는 사물의 보는 견해에 맞추어 달리 나타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가 '임상가는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서 Erikson은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임상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직접적인 진리가 각기 일회적인 사례에 있어서 독특성(개별성) 속에서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회적인 사례에 특유한 것은 다른 연구자가 취급하는 다른 독특한 것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 실은 독특한 것에 대한 연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례에서 입증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1965, p.80).

문제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례에서 입증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존재양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각자의 관찰자에 의해 관찰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역시 이념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으로 그 '공통적인 것'은 결코 개개의 관찰자의 앞에서는 그 직접적인 소여성(所與性)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념으로서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각자의 사례'와 '몇 가지 사례에서 입증될 수 있는 공통적인 것'과의 관계가 사실은 Erikson이 말하고 있는 '지상의 아이덴티티'와 '초월적 아이덴티티(beyond identity)'와의 관계(1963a, pp.403-407)와 같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월적 아이덴티티가 지상의 아이덴티티로서는 결코 실현되는 일이 없고 어디까지나 이념으로서 존재하며, 그러나 이념으로서 모든 지상의 아이덴티티를 포괄하고 대립하고 대응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화의 근거를 제공한다(박아청, 1997)는 것과 똑같은 구도에서 임상의 '공통적인 것'은 '개개 각자의 임상 사례'에서 논리적 전제가 된다.

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임상에 있어서 무엇이 직접적인 진리인가'에 대한 물음이 이해가 된다. 그것을 증명(evidence)하는 것은 마치 개개 사례의 독특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본질'이고 '보편'인 것이 아니라 그 '본

질'을 이념으로 한 다음에 그 이념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대화를 진척시키는 가운데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상에 있어서 증명성의 본질'이란 개개 사례의 독특성(개별성)의 속과 스스로의 입장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봄으로써 이념으로서 공통적인 것(보편성)으로 높이려는 끝없는 행진 속에 마치 그 이중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임상이라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인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 Erikson이 말하고 있는 심리역사적 방법(psychohistory)인 것이다. 이 방법은 역사의 한 장면을 산 인물의 생육사를 같은 역사의 한 장면과 생육사의 한 단계를 살아있는 사람이 묻는 방법이다. 그것을 Erikson은 『간디의 진리』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이 우리들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한 것, 기록자가 기록한 것, 그리고 재검토자가 바꿔 기록할 것을 결의한 것'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심리역사 연구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를 했을 때, 기록자가 기록을 남겼을 때, 그리고 재검토자가 고찰했을 때, 그들은 각기 그러한 인생단계에 있었던 것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심리역사 연구자는 그 단계가 각 사람의 평생주기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평생주기를 각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에 관련짓기를 바라는 것이다(1969, p.55).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문제가 역사적 상대성=관계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역사적 사실도 역시 그 사실을 획득하기에 이르는 견해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 우리들 앞에 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록되고 말해지는 것을 통해서이고, 그 '말해지는 역사'(narrative history)는 '역사에 있어서 일어난 일'의 객관적인 재구성(reconstruct)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현재의 지점에서 건설적(constructive)으로 그때마다 새롭게 논의되는 것인 셈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상대성=관계성이 질서가 없는 상대주의(relativism)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경우에 그것을 잠정적(provisional)인 성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잠정적이란 것은 역사를 임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리에 대한 단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사는 항상 새롭게 개정되어지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은 역사가 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새로이 쓰여지는 것도 포함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면도 추가하여 다각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예컨대, 간디의 생육사를 후년에 Erikson에 의해 검토됨으로써 간디의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그 생육사와 역사와의 관계가 보다 다각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간디의 진리』(1969)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는 Daedalus(1970, No.97, 99. 4(Fall), 695-730)에 게재된 그의 논문

『On the nature of psycho-historical evidence: in search of Gandhi』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전에는 보여진 것이 나중의 검토에서 상실되어 버리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말해지는 역사'가 잠정적 성격을 자각함으로써 상호의 대화가 또는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러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모든 '말해진 역사'가 통일적인 이념으로서 존재하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보다 다각적,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역사적 방법이란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역사를 초월한 것에 몸을 두고 역사의 제단사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나 동시에 '연구자의 체계적인 자기대상화'를 거침으로 연구자 상호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포괄적인 역사상으로 진행해가는 도상에 위치를 두려는 시도인 것이다.

역사적 상대성(historical relativity)에 관해서 Erikson은 반복해서 '정신분석 이론이 갖는 역사적 상대성=관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1943년 Yurok 인디언 부족을 조사할 때 만난 'Fanny'라 불리는 노파 Shaman에 대해서 Erikson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하면서 "아메리카의 정신의학의 역사에 있어서는 나와 그녀와는 정반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파에 대해서 나는 동료와 같은 기분을 맞볼 수 있었다"(1965, p.55)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심

리치료가 역사적으로 relative한 것을 함께 느끼고 있고 심리치료는 문화나 사회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 따라서 양자의 차이는 결코 우등이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정신분석이론이 문화인류학으로 갖고 들어가 문화적 다름을 동일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여 결과적으로는 비역사적인 '문화와 퍼스널리티'의 이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Erikson은 한 사람의 사면과의 회화를 극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Erikson, 1950, 1963, pp.171-175; Schlein, 1987, pp.384-395), 세계관(world image)의 차이와 거기에서 파생하는 역사적 상대성=관계성을 정신분석이론의 방식으로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상대성=관계성은 Erikson의 사물을 보는 견해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에 있어서 그 동형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의 임상과학, 심리역사적 방법 그리고 아이덴티티 사상에서 뿐 아니라 윤리사상에서도, 상대성=관계성이 그 이중성을 갖고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전체적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방법론을 검토하는 가운데 몇가지 주요한 특징을 고찰하였다. Erikson의 인간에 대한 이론은 인간과 역사 그리고 사회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심리사회적 과정을 탐색한 점에서

일종의 인간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의 인간학의 이론적 기본이 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의 '사물을 보는 견해'에서 시작되며, 그의 이론적 관점은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상을 관찰하면서 피관찰자와 관찰자인 자신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참여적 관찰에서 지견을 얻는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모습은 참여관찰자인 동시에 관찰적 참여자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참여적 관찰에서는 임상과 학으로서 당연히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는 훈련된 주관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훈련된 주관성이란 그에 의하면 '연마된 통찰력'인 것이다. 실증과학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그는 임상과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우리들의 연구대상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강조하여 피관찰자와 연구자 간 관계에서 연구자 자신을 상대적=관계적으로 보면서 관찰자의 사물을 보는 견해는 그가 새로이 개척한 심리역사학적 방법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전 저작들의 기본적인 시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보는 견해'가 상대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몇 개의 결과가 제시될 수 있지만 '몇 가지의 사례들 가운데서 입증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념으로서 끝없이 탐색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그의 연구의 독특성(개별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오늘날 각 학문에서 높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그의 이론이 이념으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추구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그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볼 때, Erikson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 예컨대, 인간의 점성론적 발달지표, 심리역사, 또는 아이덴티티와 같은 인간 내면의 발달을 평생주기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의 이론에 대한 이해는 그의 '사물을 보는 견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아청(1994). Erikson의 인간발달론에 제시된 '발달원리'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1(1), 100-111.
- 박아청(1995a). Erikson의 인간발달이론에 나타난 '발달'과 '역사'와의 관계. **계명행동과학**, 8(1), 1-16.
- 박아청(1995b). 성인발달연구를 통해 본 평생발달심리학의 경향과 전망. **인간발달연구**, 2(1), 95-106.
- 박아청(1997). 아이덴티티를 초월한 아이덴티티의 문제. **교육학연구**, 15(1), 69-88.
- Conzen, P.(1990). *Erik H. Erikson und die Psychoanalyse: Systematische Gesamtdarstellung seiner theoretischen und klinischen Positionen*. Asanger, R/HVS.
- Capps, D.(1977). *Encounter with Eriks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Religious Biography*. New York: Scholars Press.
- Erikson, E. H.(1958).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 and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63a).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63b). *Youth: change and challenge*. New York: Basic Books.
- Erikson, E. H.(1965).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sic Books.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69). *Gandi's Truth: on the origins of militant nonviolence*.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74). *Dimensions of a New Identity: the 1975 Jefferson lectures*.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75). *Life History and the Historical Moment*.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77). *Toys and Reasons: stages in the ritual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Liebert, R. M., & Liebert, L. L.(1998). *Personality: Strategies and Issues*. New York: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Newman, B. M., & Newman, P. R.(1988). *Development Through Life*. New York: Books/Cole Publishing Co.
- Shaffer, D. R.(1996).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Books/Cole Publishing Co.
- Santrock, J. W.(1995). *Life-Span Development*. Dubuque, IA: Brown & Benchmark.
- Schlein, A.(Ed.).(1987). *A Way of Looking at Things: selected papers from 1930 to 1980*. New York: W. W. Norton.

## Perspective Characteristics Suggested in Erikson's Humanics

Park, Ah-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suggested in Erikson's humanics. Some methods used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s in his researches discussed in this study were found in such topics as: 'a way of looking at things,' the importance of subjectivity, investigators as an instrument of investigation, and 'relativity' in clinical science. And his case studies on 'a human being as a living thing' and his ideology on the nature of psycho-historical evidence expressed in 'Gandhi's Truth' and 'Young Man Luther'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Erikson • Clinical Science • Psycho-historical •  
Participant observation • Subjectivity • Relativity.